

오프셋인쇄기 주요 메이커들 인쇄산업 변화에 발빠른 대처

오프셋 인쇄기 제조업체들은 최근 판매량이 떨어지면서 새로운 시장으로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작년 말부터 KBA는 성공적 영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새로운 분야로 사업 영역을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런 흐름에는 KBA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만로랜드와 하이텔베르그 모두 새로운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는 주력 오프셋 인쇄기 사업에서 탈피한 다변화가 화두라는 것이다.

새로운 수익원의 창출

성탄절 직전, 만로랜드는 잉크젯 인쇄장치에 대한 709번째 특허를 취득했으며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이 회사가 디지털 광 포맷 시장에 진입할 준비가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았다. 한편, 독일의 한 인쇄기 보고서에는 하이텔베르그가 디지털인쇄운영을 위한 협력업체를 활발하게 찾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세계 3대 오프셋 인쇄기 제조업체가 다른 수익원을 찾고 있다는 사실은 불황이 지나도 오프셋 인쇄기 시장에서는 전과 같은 수익이 창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실제로 오프셋 판매는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다변화를 꾀하면서, 주력 사업 밖으로 눈을 돌리며 리스크를 줄이는 제조업체가 있다. IPEX가 다가오면서 오프셋 제조업체들이 그들의 인쇄기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시트 피드 부문에서는, 지난 수년간 개선된 자동화를 통해 판고르기 시간을 단축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자동 판 교환 같은 기술의 대부분은 웹 오프셋 부문에서 시작하여 시트 피드로 확장되었다. 이런 발전 덕분에 인쇄업자들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했다. 따라서 그 의도의 핵심은 대체가 아니라 사업영역의 추가로 보여 진다.

안정적인 기반 확보

KBA 영국의 상무이사 크리스티안 냅(Christian Knapp)은 “우리는 우리의 사업을 위해 안정적이고 확고한 토대를 찾아야 합니다. 인쇄기 생산은 KBA의 가장 중요한 주요 분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룹의 이사진은 새로운 시장으

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KBA는 이에 적응하고 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인쇄기 제조업체들이 인쇄 외의 다른 부문에도 종사하고 있다는 점은 예전과 비교하여 새로운 것이 없다.

일본 회사 료비는 1954년 플라스틱 다 이 캐스트 제품의 제조업체로 출발했으나 1964년이 되어서야 오프셋 인쇄기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현재 파워 톨과 건축업자의 하드웨어도 공급하고 있다.

KBA도 포장기술, 디지털, 물 그리고 놀랍게도 태양열 기술이라는 4개 부문에서 다변화를 계획하고 있다. KBA의 이런 사업 영역은 한동안 조용히 발전해 왔다. 그룹의 클린에어(CleanAir) 사업부는 슈투트가르트(Stuttgart)에 있는 독일의 우주항공 센터와 연계해 태양열 탐 발전소를 개발하면서 공기 청정 플랜트를 위한 ‘축열기’에 대한 자사의 기술력을 내놓았다. 이 기술은 독일 울리히에 있는 태양열 발전소로 통합되었으며 이는 태양열 탐 발전소를 위한 고온 열저장 매체를 시험하고 개발하는 장기 연구 프로그램의 과제다.

점점 진보하는 기술

울리히 현장에는 2천개 이상의 이동거울이 태양의 경로를 따라 움직이면서 태양 빛을 60m 높이의 탐 정상에 있는 22.2m

영국-인쇄산업의 변화

의 수신 장치에 모은다. 이는 중앙에 있는 1천 메가와트 이상의 용량을 가진 무압력 축열기에 여러 유형으로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 장치다. 그러나 KBA의 핵심 사업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잉크젯 시장으로 뛰어들기 위한 디지털 사업이다.

이에 냅(Knapp)은 “우리의 기술력은 고속과 정확성에 있습니다. 그것은 용지 위에 최고의 이미지를 구현하는 것에 대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현재 잉크젯 시장을 주시하고 있으며 먼저 광 포맷 적용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타사와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부문입니다. 그러나 잉크젯이 석판인쇄를 대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잉크젯은 성장하고 있으나 단지 보완적인 기술일 뿐입니다. 석판인쇄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만로랜드는 주력 사업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는 모험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KBA는 잉크젯시장의 각축장 속으로 뛰어들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만로랜드의 잉크젯 인쇄장치 특허는 미국 특허상표 사무소에 등록되었으며 석판인쇄 제조업체들이 디지털 기술로 이동할 것이라고 얼마 전에 예측했었던 업계 전문가들에게 선을 보였다. 만로랜드는 특허 내용을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 사업을 신흥 시장으로 확장하고 싶다고 털어 놓았다.

만로랜드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에바 도플러(Eva Doppler)는 “우리는 우리의 핵심 역량을 어떻게 다른 분야에 적용할 것인지 고심하면서 우리의 전략적 과정에서 이런 기본적 과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역이나 우리의 제품 포트폴리오에도 아직 빈 곳이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인쇄 분야에 있어서 타 업체와 협력하고자 합니다. 지리적으로 동유럽, 브라질, 인도, 여러 아프리카 국가와 중국이 향후 수년간 탄실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만로랜드가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인쇄 산업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회사는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도플러(Doppler)는 “이런 발전은 회사 내부뿐 아니라 업계 전체에서도 새로운 개척 정신을 요구하고 또한 이를 장려한다”라고 말했다.

하이텔베르그도 회사가 투자 가치가 있다고 믿는 대체적(代替的) 시장에 대한 사업영역을 구상해 왔으며 이에 포장 인쇄기나 인쇄 후가공 라인과 독립형 DriveLine 디지털 인쇄기에 통합될 수 있는 회사의 Linoprint 고속 잉크젯 기술을 통한 포장 부문을 포함시켰다.

혁명적 인쇄 기술 개발

그러나 하이텔베르그의 눈길을 사로잡는 가장 흥미로운 부문 중 하나는 유가적인 전자 부문이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전자식 인쇄이며 기존 기판에서 저렴한 전자구성부품을 인쇄하는 것이 이론 상 곧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회사의 연구진은 바스프사(BASF:독일의 세계적 화학업체)와 그리고 다름슈타트(Darmstadt) 공대와 합

계 혁명적인 인쇄 기술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복합적인 시장이며 하이텔베르그는 향후 3년 내에 선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인쇄는 전자 시장에서 낮은 선 존재가 아니다.

2007년에는 캠브리지에 있는 Xaar의 잉크젯 프린트헤드는 LCD 화면을 만들기 위해 기계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것은 스웨덴 회사인 Thin Film Electronics와 제휴하여 세계 최초로 인쇄 RAM을 제조했다.

한편 하이텔베르그 역시 소모품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 즉, 현재 4%인 점유율을 2배로 늘리고자 하며 또한 회사가 확장시키려고 하는 세계적 컨설턴트사업부가 있다. 새로운 시장을 향한 이런 모든 확장 때문에 누군가는 제조업체의 기존 오프셋 인쇄기 제품이 홀대 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에 KBA의 Knapp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업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우리는 인쇄기 개발에 더욱 전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KBA의 이사들은 우리가 새로운 컨셉에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용 자금과 바른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이사회는 일단 기회를 찾으면 그것을 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프셋 시장이 대두되면서, 새로운 기회가 디지털 같은 인쇄 지향적 분야에 있던 태양에너지처럼 전혀 별개의 새로운 분야에 있던 업계 내의 거대기업들이 이런 기회에 눈을 돌리는 것은 타당하다. 하이텔베르그, 만로랜드 그리고 KBA같은 업체들은 그들이 지난 수년간 개발했던 기술이 많은 새로운 시장에서 큰 이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

출처_www.printweek.com (영국)

번역_박성권 기자 vovsys@print.or.kr